

1 선사 문화와 고조선



📍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어떻게 성립되었을까?

☑️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구석기 시대
- 뿔석기
- 스펀지돌

1 만주와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

학습 목표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한반도의 구석기인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한 인류는 오랜 이동을 거쳐 만주와 한반도에도 정착하였다. 한반도에는 약 7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한반도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평안남도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등이 대표적 유적지이다. 특히 검은모루 동굴 유적은 호모 에렉투스인 중국의 베이징 원인이 등장한 시기와 비슷한 때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시 역포 구역 등에서는 사람의 뼈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고 도구를 발전시켰다.



📍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사람들(복원)

📍 만주와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

10만 년 전

5만 년 전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돌과 나무, 동물 뼈 등을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었다. 주먹도끼, 찌개, 자르개와 같은 뿔석기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냥하고 고기를 잘라 냈다.

이들은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았으며,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기도 하였다. 무리 지어 이동 생활을 하며 채집과 물고기잡이, 사냥으로 식량을 얻었다. 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영양 상태도 좋아졌다.

구석기 시대 후기에 사람들은 좀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다. 스펀지가 있는 돌날을 나무에 결합한 스펀지찌르개를 사용하였으며, 잔석기를 만드는 흑요석을 일본과 같은 먼 지역과 교환하기도 하였다. 한편 무리의 번성과 풍요로운 식량 획득을 기원하며 고래나 물고기 모양의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구석기 시대 사회는 빈부 차이가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



📍 유럽 지역에서 출토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프랑스 생아술 출토)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도 이와 같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 흑요석(강원 양구 출토)

- 👤 선생님! 왜 뿔석기라 부르나요?
- 👤 돌을 깨뜨려 조각을 떼어 내서 만든 거니까.
- 👤 그냥 깨진 돌 아닌가요?
- 👤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거야.
- 👤 그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졌겠네요?

- 👤 이건 좀 다른데요?
- 👤 구석기 시대 후기에는 나무에 돌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이런 뿔석기도 만들어졌어. 스펀지찌르개라고 부르지.

- 👤 이건 뿔살추인가요?
- 👤 맞아. 빠르고 날선 동물을 잡기 위해 활도 등장했어.
- 👤 같은 뿔석기에서도 구의 발달 과정이 보이는군요.



스스로 확인

- 1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 2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돌을 깨뜨려 만든 □□□□을/를 사용하였다.

☑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간석기
- 빗살무늬 토기
- 농경, 목축

2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다

학습 목표 |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을 구석기 시대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간석기와 토기의 제작

빙하기가 끝나고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숲이 우거지고 노루, 멧돼지, 토끼 등 작고 날랜 동물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잡기 위해 돌을 갈아 더 정교한 간석기를 만들었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작살과 낚시바늘, 그물추가 달린 그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줬다. 또한 채집과 사냥으로 도토리 등의 나무 열매나 뿌리, 고기와 같은 식량을 얻었다. 이들은 음식을 보관하고 조리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신석기 시대 후기에는 원시적인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돌로 만든 쟁이나 보습 등의 농기구로 조·파·기장 등을 재배하였으며, 돼지·염소 등을 가축으로 길렀다.



☞ 간석기(경기 하남 출토)



☞ 결합식 낚시바늘(부산 범방동 출토)과 그물추(경기 연천 출토), 그물무늬가 새겨진 토기 조각(부산 동삼동 출토)



☞ 갈돌과 갈판(강원 양양 출토) 나무 열매나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 가락바퀴(충북 청주 출토) 섬유를 꼬아 실을 만들 때 사용된 도구이다.

신석기 시대의 사회와 문화

농경과 목축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여전히 사냥과 채집, 물고기잡이가 중요하였지만, 농경을 통해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점차 마을을 이루어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들은 씨족 단위로 공동 작업하여 식량을 생산하였고, 생산물도 공정하게 나누어 빈부의 차이가 없는 평등한 생활을 하였다.

한편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식량을 생산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자연에 위대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태양·물·바위와 같은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 생겨났고,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도 생겨났다. 씨족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영혼이나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하였다.



땅을 파서 움집을 지으면 기둥을 높이 세우지 않아도 되고 겨울에 따뜻하지요.

☞ 움집 땅을 원형이나 네모 형태로 50~100cm 깊이로 판 후 단단하게 다지고 가운데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화덕을 두었다. 그리고 기둥을 세운 후 갈대나 억새 등의 풀로 지붕을 만들었다.

지식+ 선사 시대 최고의 발명품, 토기

토기는 식량을 저장, 운반하거나 조리할 때 필요한 그릇이다. 흙을 적절한 모형으로 빚어 불에 구워 만든 토기는 인류 역사를 뒤흔든 창의적 발명품이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류는 자연환경과 생활 풍습에 따라 쓰임새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토기를 만들었다. 토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삶거나 찌서 먹게 되면서 인류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커져 인구수가 크게 늘어났다.

신석기 시대에 중국의 황허강 유역에서는 토기 표면에 색을 칠한 채도가 발달하였고, 일본에서는 새끼줄 무늬로 장식된 조몬 토기가 발달하였다. 한반도에서는 덧무늬 토기, 누른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등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빗살무늬 토기로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1 이집트 토기(이집트 출토) 동물 모양이 그려진 토기이다.



2 메소포타미아 토기(시리아 출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하였다. 사람들은 수확한 곡식과 종자를 보관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었다.



3 라오허강 유역의 홍산 문화 토기(중국 라오닝성 출토)



4 황허강 유역의 양샤오 문화 토기(중국 산시성 출토)



5 빗살무늬 토기(서울 암사동 출토)



6 덧무늬 토기(강원 양양 출토)

곡식을 갈아서 토기에 넣어 물을 붓고 끓이면 먹기도 좋고 소화도 잘되요.

토기의 밑을 뾰족하게 만들어 땅바닥에 꽂아 두고 사용하였지.



스스로 확인

- 1 신석기 시대 한반도의 대표적인 토기는?
- 2 신석기 시대에는 □□와 □□가 목축이 시작되었다.

☑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비파형 동검
- 반달 돌칼
- 고인돌
- 족장(군장)



☞ 청동 거푸집(전남 영암 출토) 도끼와 낫바늘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 거푸집이다.



☞ 민무늬 토기(경기 하남 출토)

3 만주와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다

학습 목표 | 청동기 문화의 보급에 따른 사회 변화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청동기 문화의 보급

기원전 2000년경부터 만주에 전해진 청동기 문화는 점차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 아연 등의 합금으로, 사람들은 열을 가하여 청동을 녹인 후 거푸집을 이용하여 검·도끼와 같은 무기나 거울·방울과 같은 제사용 도구, 장신구 등을 만들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무늬가 없는 다양한 형태의 민무늬 토기 등이 있다. 청동기는 재료를 구하기 힘들고 땅을 일구거나 나무를 자르기에 적합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반달 돌칼 등 농기구와 같은 생활 도구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졌다.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권이 발달하면서 점차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 기원전 3세기경 일본에 청동기가 전래되었다.



☞ 반달 돌칼(국립중앙박물관)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데 사용된 간석기이다.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은 청동기 시대에 더욱 발달하여 조, 기장, 수수 등 다양한 잡곡이 재배되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벼농사도 보급되었다. 한 편 돼지와 같은 가축을 우리에 가두고 기르는 일도 흔해졌다. 사람들은 농경이 이루어지는 강가나 완만한 구릉에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농경의 발달로 생산력이 늘어나자 인구가 늘어나고 빈부 차이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또한 식량을 둘러싼 집단 간의 싸움이 자주 일어나면서 마을에는 방어 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집단 간의 전쟁으로 유력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으며 집단을 이끄는 족장(군장) 세력은 점차 권력을 키워 나갔다. 이들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권위까지 이용하여 집단을 지배하였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을 통해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지배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탁자식 고인돌(인천 강화) 지배층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만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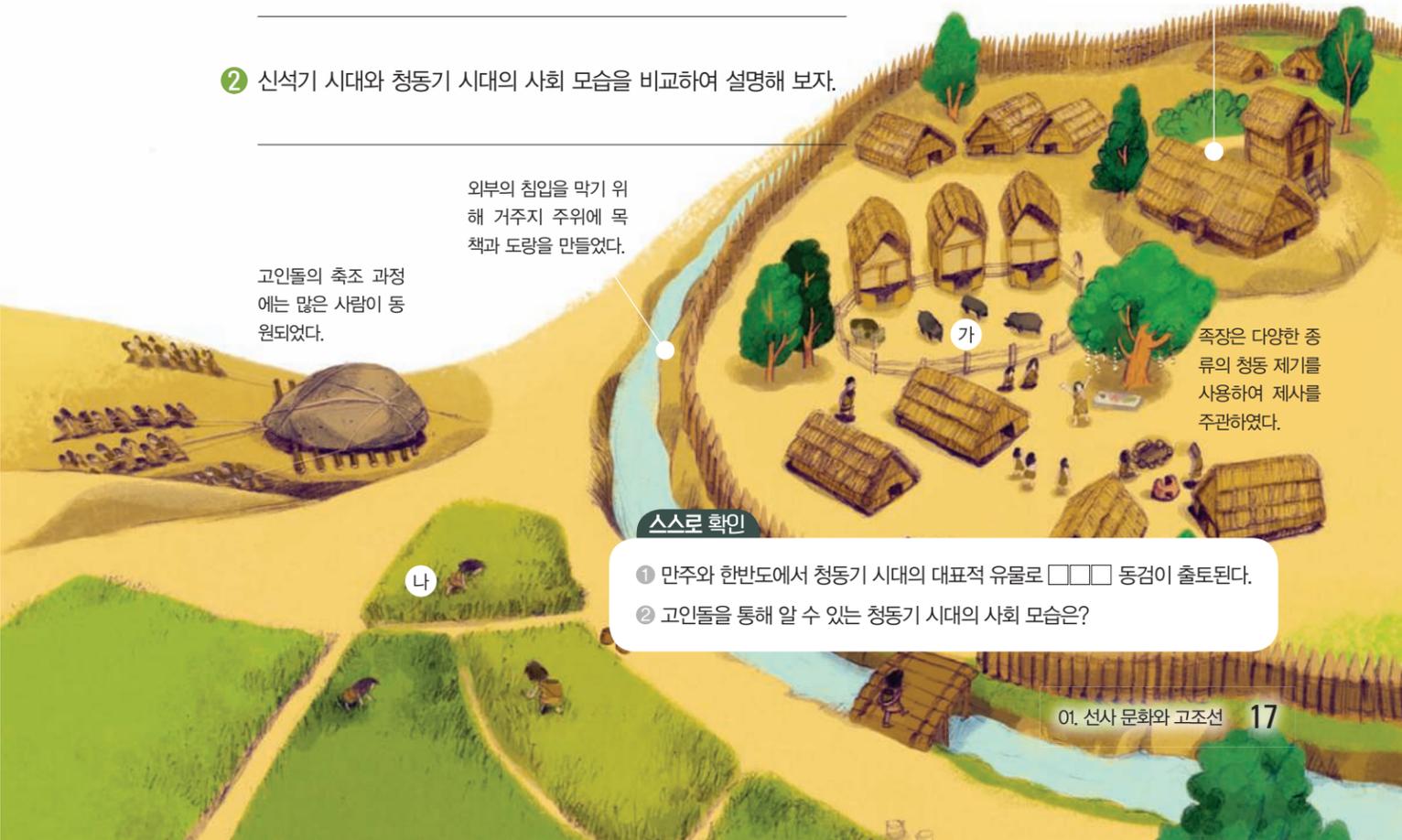
탐구 해보자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

1 그림의 (가), (나)에 해당하는 설명을 써 보자.

2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집은 점차 지상 가옥으로 변하였으며, 창고와 같이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집이 지어졌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거주지 주위에 목책과 도랑을 만들었다.

고인돌의 축조 과정에는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다.

족장은 다양한 종류의 청동 제기를 사용하여 제사를 주관하였다.

스스로 확인

- 1 만주와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로 □□□ 동검이 출토된다.
- 2 고인돌을 통해 알 수 있는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은?

지식+ 만주·한반도의 청동검과 중국의 청동검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러한 차이는 청동검이나 제사용 도구의 종류 및 형태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비파형 동검은 중국식 동검과 모양도 다르지만, 중국식 동검이나 오르도스 청동검과 달리 칼날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조립한 것이 특징이다.

한반도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은 점차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였다. 세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초기 철기 시대에 주로 청천강 이남 한반도에서 사용되어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불린다.

☑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고조선
- 단군왕검
- 8조법

4 고조선이 발전하다

학습 목표 | 고조선을 통해 우리 역사의 기원을 알고 당시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

기원전 2000년경 이후 황허강 유역에서는 청동기 문화의 발전과 생산력 증대에 힘입어 국가가 성립하였다. 만주 일부 지역과 한반도 지역에서도 발달한 농경과 우수한 청동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선진 집단이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집단을 정복하거나 그들과 연맹을 맺어 세력을 확장하고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성립되었다.

『동국통감』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우두머리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단군왕검이 제정일치 사회의 지배자임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처음에는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후기에는 한반도 북서부의 대동강 유역으로 그 중심지가 이동하였다.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등은 고조선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추정된다.



☞ 미송리식 토기(평북 의주 출토)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에서 이 같은 형태의 토기가 처음 발견되어 이름이 붙여졌다.



☞ 명도전(평북 위원 출토) 중국 전국 시대의 화폐로, 고조선의 활발한 교역 활동을 보여 준다.



☞ 잔무늬 거울(송실대학교 한국 기독교박물관) 지름 21cm인 청동 거울 뒷면에 1만 3,000여 개의 선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1mm에 3개의 선이 들어가 있는 초정밀 청동 주조 유물이다.

고조선의 발전

기원전 5~4세기경 전국 시대의 혼란을 피해 중국에서 많은 유이민이 고조선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철기 문화가 점차 보급되었다. 청동기 제작 기술도 발달하여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발전하였다. 고조선은 중국의 연과 교류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갔으나, 연의 침입으로 일부 영토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고조선은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하고 왕 밑에 상,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을 두어 관료제를 정비하는 등 정치 기틀을 다져 나갔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기원전 2세기경 진·한 교체기에는 유이민 세력과 함께 고조선에 들어온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였다(기원전 194). 이들의 유입으로 고조선 지역의 철기 문화는 더욱 발전하였다.

한편 고조선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신분층이 형성되었다. 고조선은 「8조법」 등 엄격한 법률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

탐구 해보자 고조선 건국 이야기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태백산 지역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 환웅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 (가) ……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단군왕검은 요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불렀다. - 일연 『삼국유사』 -

1 (가)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발표해 보자.

2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 농업 사회
- 계급 사회 형성
- 제정일치 사회
- 홍익인간의 이념
- 집단 간의 연맹

활동 해보자 고조선의 「8조법」 분석하기

모둠 활동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가)~(라)를 채워 보자.

고조선의 「8조법」 중 지금 남아 있는 일부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발표해 보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하게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려고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게 한다. - 반고 「한서」 -

살인이나 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통해 (가)

곡물로 배상한다는 것으로 보아 (나)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표현을 통해 (다)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을 통해 (라)

이때 세계는?

한이 서쪽으로는 비단길을 개척하고 북쪽으로는 흉노를 몰아냈다. 이어 남쪽으로는 베트남 일대를 정복하는 등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한의 침입과 고조선의 멸망

위만이 집권한 이후 고조선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한반도 동남쪽에 있던 정치 집단이나 소국이 직접 중국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을 하였다. 이를 통해 성장한 고조선은 중국의 한과 맞서게 되었다. 흉노 정벌에 나선 한은 고조선이 흉노와 연결되는 것을 막고자 고조선을 공격하였다.

고조선은 한의 대군에 맞서 1년여를 싸웠지만 결국 지배층의 분열로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세워 지배하였다. 한편 고조선 멸망을 전후하여 많은 사람이 남쪽으로 이주하여 삼한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고조선의 멸망

(기원전 108년) 여름, 니계상 참은 아랫사람을 시켜 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했으나 왕검성이 항복하지 않았다. 우거의 대신 성기가 다시 모반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장과 노인의 아들 최를 시켜 백성에게 사실을 알리고, 모의하여 성기를 죽이니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임둔·낙랑·현도 4군을 세웠다.

- 일연, 『삼국유사』 -



고조선과 한의 전쟁

나도역사가

무늬와 그림에 담긴 삶과 신앙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바위와 각종 유물에 그림과 무늬를 새겼다. 다양한 형태로 상징화된 기호, 사람과 동물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검둥그라미, 십자무늬 등 특이한 기하학적 형태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태양 숭배나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관련 유적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람들의 생업이라 할 수 있는 고래 사냥, 목축 등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베리아 샤먼 관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지학박물관) 시베리아 지역의 샤먼이 쓰던 관으로, 사슴뿔이 표현되어 있다.

사슴 돌(몽골) 몽골 초원 일대에서 많이 발견되는 사슴 돌이다. 표면에 사슴 등이 새겨져 있다.

고령 장거리 암각화(경북 고령) 높이 3m, 폭 6m 정도의 바위에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울산 울주)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안공 호수 근처의 절벽에 많은 고래와 짐승, 사람들이 새겨져 있다.



Y자 모양의 가지에 앉아 있는 새는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거나 하늘에서 곡식의 씨앗을 물고 오는 존재로 여겨진다.



농경문 청동기(국립중앙박물관) 길이 7.3cm 정도의 청동기. 아랫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나무에 얹은 새의 모습과 따비로 밭을 가는 사람이 앞뒷면에 새겨져 있다.

*사머니즘 초자연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샤먼(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이나 종교



검파모양 동기(국립중앙박물관) 대나무를 세로로 쪼개 놓은 모양의 청동기로, 제사와 관련된 유물이다.



사슴은 시베리아 일대의 사머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식+ 한 군현 설치와 낙랑

한은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 고조선이 있던 자리에 진번, 임둔, 낙랑, 현도의 4군과 여러 현을 설치하였다. 그중 낙랑은 한반도의 여러 지역과 교류하고 중국의 문화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하며 오랫동안 번성하였다.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성장과 공격으로 위축되다가 313년 고구려에 의해 멸망하였다.

낙랑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통로라는 측면과 우리 민족이 중국 지배에 저항하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낙랑의 금제 허리띠 고리(평양 석암리 9호 무덤 출토) 순금으로 만든 얇은 금판 위에 수백 개의 금 알갱이를 일일이 붙여 만들었다.



스스로 확인

- 1 기원전 2세기 □□의 집권 이후 고조선에서는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발전하였다.
- 2 고조선의 □□□□을/를 통해 고조선 사회가 생명을 중시하고 사유 재산이 있는 계급 사회임을 추측할 수 있다.

사고력 키우기

1 선사 시대 사람들이 위 자료에 나타난 동물을 그린 이유가 무엇일지 상상해 보자.

2 선사 시대에 나타났던 원시 신앙을 설명해 보자.



여러 나라의 성장



❓ 철기의 보급에 따라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 ☑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부여, 고구려
 - 옥저, 동예, 삼한

1 철기를 만들어 사용하다

학습 목표 | 철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 철제 농기구와 무기(평북 위원 출토)

철기 문화의 발전

기원전 5~4세기경 고조선에 전파된 철기 문화는 만주 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철은 청동보다 구하기 쉽고 단단해서 다양한 농기구나 무기로 만들 수 있었다.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개간이 활발해지고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우수한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전쟁도 더 치열해졌다. 하지만 청동기도 장식품이나 제사와 같은 의례용 도구로 여전히 사용되었다.



여러 나라의 등장

철기를 잘 다루는 집단은 철제 무기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통합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점차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철기 문화의 발전과 사회 변화를 배경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연맹 왕국으로 성장한 부여와 고구려를 비롯해 옥저, 동예, 삼한이 등장하였다.

스스로 확인

- 1 돌로 된 농기구에서 □(으)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났다.
- 2 철기 문화의 발전으로 만주에서는 □□와/과 고구려가 건국되었다.

2 만주와 한반도에서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

학습 목표 |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다양한 나라의 생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부여의 발전

부여는 만주 송화강 일대에서 성립되었다. 넓은 평야 지역에 자리 잡은 부여는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였으며, 일찍부터 한을 비롯한 중국 왕조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성장하였다. 부여에서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관리들이 별도로 각각의 지역을 다스렸다. 왕의 권력이 약하여 연맹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었으며,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고구려의 건국과 발전

고구려는 부여에서 이주한 주몽 집단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에 의해 건국되었다. 압록강 중류 일대 산이 많은 지역에서 성립된 고구려는 한의 군현을 몰아내고 주변 소국들을 복속하면서 점차 영토를 확장하였다.

왕 아래 상가, 패자, 고추가 등의 관직이 있었고 계루부를 비롯한 5부의 대가가 국가를 운영하였다.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제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였다.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과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제가 회의
- 제천 행사
- 민며느리제
- 책화
- 천군
- 소도

● 5부 고구려 초기 주요 5개 정치 집단으로, 계루부·소노부·절노부·관노부·순노부가 있었다.

● 제가 회의 부족의 지배자로 여겨지는 여러 '가(加)'가 모인 회의라는 의미로, 고구려의 중요 국가 정책을 의논·결정하였다.

이야기 삼 # 부여는 어떤 나라였나요?

건국

부여는 고조선 멸망 이전인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이 설치한 군현이나 고구려와 경쟁하면서 발전하였다.

멸망

부여는 3세기 이후 선비족인 전연의 침입으로 쇠퇴하였다. 5세기 고구려의 침입으로 명맥만 유지하다 왕족들이 고구려에 망명하면서 멸망하였다.

의의

고구려와 백제 왕실은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 특히 백제는 부여 계승 의식이 강해 왕족의 성이 '부여씨'였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기도 하였다.

●● 과하마 몸집이 작아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갈 수 있는 말을 뜻한다.

●● 민며느리제 혼인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어릴 때부터 신랑 집에서 길러 성장하면 아내로 삼는 혼인 풍습이다.



☞ 솟대(강원 강릉) 마을 입구에 세워진 것으로, 마을을 지켜주는 신앙과 관련 있다. 삼한의 소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옥저와 동예의 성립

옥저와 동예는 한반도 동해안 지역의 비옥한 지역에서 성립되어 농경에 유리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특히 동예는 단궁이라는 작은 활과 과하마라는 말, 반어피라 불린 바다짐승의 가죽이 특산물로 유명하였다.

옥저와 동예는 한반도의 동쪽에 치우쳐 선진 문물의 수용이 어려워 정치 발전이 늦었다. 이 때문에 고구려에 예속되어 공물을 바치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고구려에 멸망하였다.

옥저에는 가족 공동 묘의 장례 풍습과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동예에는 타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배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동예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하늘에 풍요를 기원하고 춤과 노래를 즐기며 집단의 단합을 꾀하였다.

삼한의 발전

삼한은 한반도의 남부 지역에서 발전하였다.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 마한이, 경상도 낙동강의 동쪽 지역에서 진한,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변한이 연맹체로 발전하였다. 그중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커 마한 목지국의 지배자가 삼한을 대표하였다.

벼농사가 발전하여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열었다. 변한과 진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 수출하고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소도에는 군장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삼한은 이후 백제와 신라, 가야로 이어졌다.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에 통합되었고 변한은 연맹체를 이루어 가야로 발전하였다.

☑ 각 나라에서 열린 제천 행사는 농사나 사냥의 풍요로움을 하늘에 빌거나, 집단의 단합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이 행사를 동맹이라 부르지만 부여에서는 영고, 동예에서는 무천이라 하지. 삼한에도 이런 제천 행사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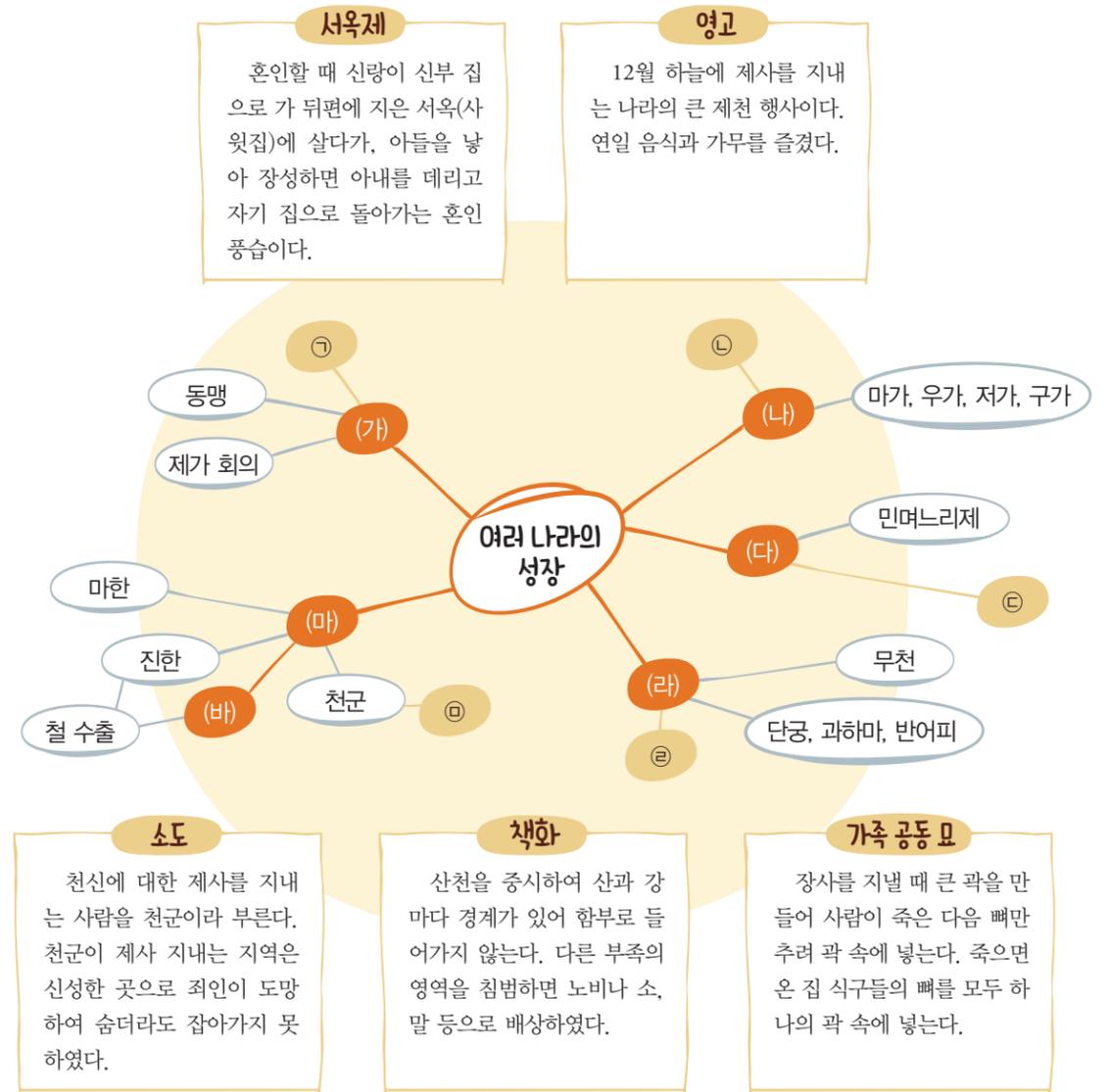
활동 해보자

여러 나라의 특징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개별 활동

활동 방법

- ① 마인드맵의 빈칸 (가)~(바)에 나라의 이름을 쓴다.
- ② 마인드맵의 ㉠~㉡에 들어갈 풍습을 찾아 선으로 연결한다.



스스로 확인

- ① 고구려에서 각 부족의 지배자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던 회의는?
- ② 옥저에는 혼인 풍습으로 □□□□제가 있었다.

3 삼국의 성립과 발전



삼국은 어떻게 경쟁하며 발전하였을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태조왕
- 고이왕
- 내물왕
- 금관가야

1 삼국과 가야, 나라의 기틀을 다지다

학습 목표 | 삼국 및 가야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고구려의 성장

졸본에서 건국된 고구려는 국내성(중국 지린성 지안)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는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 지방으로도 진출을 꾀하였다.

고구려는 처음에 계루부, 소노부 등 5부가 연합하여 국가를 형성하였는데, 왕권이 성장하면서 계루부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에 부족적 전통을 지녔던 5부는 수도의 행정 구역으로 변하였고 각 부의 족장들은 중앙의 귀족이 되었다. 또 부자 간의 왕위 계승이 점차 확립되면서 왕권이 더욱 강화되었다.

환도산성 아래 고분들의 모습(중국 지린성) 넓은 벌판에 수백 기의 무덤이 밀집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오녀산성(중국 라오닝성)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졸본의 흙승골성으로 추정된다.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이다. 산 정상은 넓은 평탄지이며, 이곳에서 고구려 초기의 집터가 다수 발굴되었다.

지린성 지안 일대 고구려 유적



백제의 건국과 성장

백제는 비류, 온조 등 부여-고구려계 유이민 세력이 남하하여 한강 하류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세운 나라이다(기원전 18). 마한의 소국으로 출발한 백제는 육로와 바닷길이 편리한 위례성을 도읍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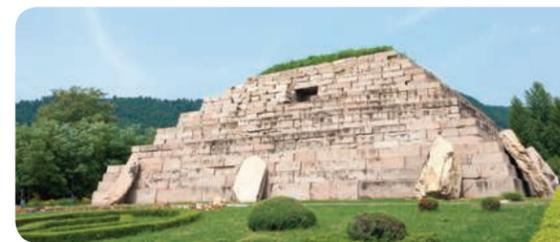
3세기 고이왕 때에는 좌평을 비롯한 관직과 관리의 등급을 마련하는 등 국가 체제를 정비하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후 주변의 마한 소국을 병합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서울 풍납동 토성(서울 송파) 둘레 약 3.5km의 대규모 백제 토성으로, 벽돌과 기와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도로와 주거지, 창고와 신전으로 보이는 건물터 등도 발굴되어 위례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탐구 해보자

고구려 장군총과 백제 석촌동 고분



장군총(중국 지린성) 한 변의 길이 31.5m, 중국 지안에 있는 5세기 고구려의 거대한 계단식 돌무지무덤이다.



석촌동 3호분(서울 송파) 한 변의 길이 50.8m, 서울 석촌동에 있는 4세기 백제의 계단식 돌무지무덤이다. 근처에 여러 기의 돌무지무덤이 있다.

1 두 무덤의 모양을 보고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

2 백제의 건국 이야기를 찾아보고 두 무덤 양식이 비슷한 이유를 추측하여 말해 보자.

- 거서간(귀인)
- 차차웅(제사장)
- 이사금(연정자, 계승자)
- 마립간(대군장)
- 왕

↗ 신라 왕호의 변화 신라의 왕권이 성장하면서 그에 맞게 왕의 호칭도 변화했다.

신라의 건국과 성장

낙동강 유역에서 성립한 진한, 변한 사회에도 큰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다. 진한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한 신라는 박혁거세로 대표되는 유이민 세력과 경주·울산 지역의 토착 세력이 결합하여 세운 나라이다. 한반도 동남쪽 끝에 위치했던 신라는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리적 조건으로 고구려와 백제보다 국가 발전이 늦었다.

그러나 울산 지역의 철광 산지와 교통에 유리한 영천 지역을 장악한 신라는 3세기 후반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소국들을 복속시키며 진한의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이후 박·석·김, 3성의 유력자가 번갈아 연맹장인 '이사금'으로 추대되었다. 4세기 후반 **내물왕** 때에는 왕권이 더욱 성장하여 김씨의 왕위 세습이 확립되어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을 왕호로 사용하였다.

가야 연맹의 형성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낙랑군과 왜를 잇는 해상 교통의 요지에 위치했던 **금관가야**가 성장하였다. 금관가야는 주변의 여러 소국을 거느리며 가야 연맹을 형성하였다.

3세기 중반 금관가야는 풍부한 철광과 우수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철제 무기를 비롯한 각종 도구를 제작하였다. 특히 해상 교역이 발달하여 질 좋은 덩이쇠를 삼한과 동예를 비롯해 낙랑·대방군과 왜에 수출하였는데, 이때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또 단단한 토기를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 이를 왜에 전해 주었다.



↗ 금관가야가 성장했던 옛 김해만의 자연환경 옛 김해만은 현재와 달리 항구가 발달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을 잘 갖춘 곳이었다. 이로 인해 해상 교역이 발달하였다.

가야는 어떻게 철기를 제작하였을까?

철은 청동과 달리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각종 농기구와 무기 등을 생산하는 데 적합한 금속이었다. 이로 인해 철광석이 풍부한 산지를 차지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였다. 가야 연맹은 풍부한 철산지를 확보하여 발전하였다.

- 1 숯 생산** 고온을 내는 백탄을 만들기 위해 숯가마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모래를 덮었다.
높은 온도를 내려면 숯이 좋아야 해.
- 2 선철 추출**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서는 제철로 내의 온도를 1,200℃ 이상으로 높여야 했다. 이를 위해 제철로에 백탄을 넣고 풀무를 밟아 산소를 계속 공급하였다.
풀무를 세게 밟아.
바람을 계속 불어 넣어야 철광석이 녹는 온도를 낼 수 있어.
- 3 거푸집으로 주조** 용해로에 선철을 넣어 녹인 후 원하는 모양의 거푸집에 부어 주철 제품을 만들었다.
- 4 강철 생산** 단조와 담금질을 통해 강철 속의 불순물을 없애고 밀도를 높여 제품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 덩이쇠(경남 함안 출토)
↗ 판갑옷(경남 김해 출토)

스스로 확인

- 1 신라는 내물왕 때 대군장을 뜻하는 □□□을/를 왕호로 사용하였다.
- 2 풍부한 철 생산과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가야 연맹을 주도한 나라는?

지식+ 신라의 건국과 3성의 시조 이야기

박혁거세 |
백마가 하늘에서 내려와 알을 품으니, 알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다.

석탈해 |
알을 넣은 껌짝을 실은 배가 떠 내려와 경주 바닷가에 도착하였다. 노파가 껌짝을 여니 사내아이가 나왔다.

김알지 |
계림 숲속 나뭇가지에 금빛 껌짝이 걸려 있고 흰닭이 울고 있어 껌짝을 열어 보니 사내아이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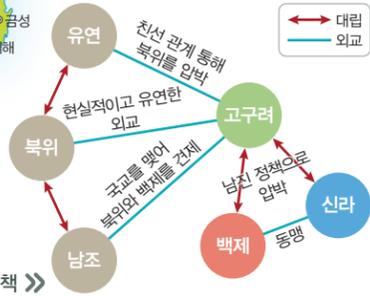
고씨와 부여씨 단일 성씨만 나오는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이야기와 달리, 신라의 건국 이야기는 박·석·김, 3성의 시조가 차례로 탄생하여 번갈아 신라의 왕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라의 3성 시조 이야기는 신라의 건국과 성장이 어느 한 성씨 집단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 성씨 집단이 서로 연합·협력하여 진한의 맹주로 성장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
신라의 3성 시조 이야기에는 알에서 태어나거나 닭과 연관이 많은 내용이 많다. 알과 닭은 신라의 풍요와 광명을 바라는 상징물이다.
한편 백마에서 태어난 혁거세와 자신의 집안을 대장장이라 칭한 탈해는 신라의 우수한 철기 생산 능력과 군사력을 의미한다.



5세기 고구려의 영토 확장

5세기 다원적 국제 질서와 고구려의 외교 정책



고구려의 평양 천도와 대외 관계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이후,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였다(475).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군사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맞섰다.

장수왕은 중국의 남북조나 몽골 초원의 강자인 유연 등과 대등한 외교를 펼쳐 중국이나 유목 세력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세력권을 확립하였다. 이로 인해 고구려, 유연, 북위, 남조가 서로 견제하며 공존하는 다원적인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다.

5세기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 된 고구려의 왕은 신성한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고구려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표방하였다.

탐구 해보자 고구려인의 천하관

자료 1

- 왕의 은택은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 광개토 대왕릉비문 -
- 하백의 손자이며 해와 달의 아들인 추모성왕(주몽)이 북부여에서 태어나셨으니 천하 사방은 이 나라 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알지니 - 모두루 무덤 묘지문 -

자료 2

고구려는 충주 고구려비에 신라를 '동이'라고 표현하여 고구려가 사방의 오랑캐를 복속시킨 천하의 중심임을 과시하였다.

충주 고구려비 (충북 충주)



1 자료 1, 자료 2를 통해 알 수 있는 고구려인의 천하관을 말해 보자.

2 고구려인이 위와 같은 천하관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보자.

백제의 웅진 천도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개로왕이 전사하는 등 큰 위기를 맞은 백제는 차령산맥과 금강을 방어선으로 하여 후퇴한 뒤, 수도를 웅진(충남 공주)으로 옮겼다. 그러나 천도 이후 왕이 신하에게 피살되는 등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고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왕은 혼인을 통해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였고,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귀족 세력을 견제하는 등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동성왕의 뒤를 이은 무령왕은 농업 생산을 독려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또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후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였다.



담로 국왕의 자제나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한 행정 구역으로, 중앙 집권적 지방 통치를 위한 거점으로 추측된다.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도(중국 난징박물관) 남조 양에서 무령왕이 파견한 백제 사신을 그린 그림이다. 사신 그림 옆에는 백제가 신라 및 가야 소국들을 백제의 속국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남조에 과시했던 사실이 적혀 있다.

이야기 샘 # 무령왕, 백제 중흥의 기초를 닦다

무령왕의 이름은 부여사마이다. 『삼국사기』에는 동성왕의 아들로 기록되었지만,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묘지명과 『일본서기』의 기록 등을 통해 개로왕의 아들로 추정되고 있다. 무령왕은 왕위 계승에서 한동안 배제되었다가 동성왕이 피살된 이후 즉위하였다. 그는 고구려와 말갈의 침입을 여러 차례 격파하였고, 남조의 양이나 왜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여 대외적 위상을 회복하였다. 또 흠어진 유민을 호적에 올리고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였으며, 제방을 쌓는 등 농업 생산의 기반을 다졌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양의 벽돌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중국 청자나 일본산 금송으로 만든 관, 그리고 청동 거울 등은 백제가 남조 및 왜와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보여 준다.



묘지석(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과 왕비가 묻혔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묘지명의 발견으로 백제 왕 중 유일하게 무덤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왕과 왕비의 시신을 안치했던 금송관 (북원, 국립공주박물관)



6개의 귀가 달린 청자 청동 거울(국립공주박물관)

의, 자, 손의 세 글자와 동물무늬가 장식된 청동 거울(국립공주박물관)





5세기 신라 고분의 찰갑(북원쪽)과 출토 모습(경주 쪽) 찰갑은 자유로운 신체 활동이 가능한 갑옷으로, 5세기 신라의 전투력이 크게 높였다.



새 모양의 금제 관식(왼쪽)과 관모(오른쪽)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유물로, 신라의 강력한 왕권과 함께 금을 다루는 화려한 공예 기술을 보여 준다.

신라의 중앙 집권 체제 정비

낙동강 중상류의 진한 지역을 통합한 신라는 5세기 후반 백제의 위기를 틈타, 소백산맥을 넘어 보은에 삼년산성을 구축하였다. 신라는 나제 동맹을 이용해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났고, 한강 유역으로 나아갈 기회를 엿보았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잇는 도로와 역을 개설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후 **지증왕**은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보급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수도에 시장을 개설하여

물자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호를 마립간에서 중국식 호칭인 '왕'으로 개편하였다. 또 지방관을 파견하여 복속 지역을 직접 다스렸다.

이어 즉위한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 지휘권을 체계화하였으며,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 공복의 제도를 실시해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 불교를 공인하고 상대등을 설치하는 등 신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법흥왕은 '태왕'을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는 등 이후 **진흥왕** 대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주 대릉원 일원(경북 경주) 경주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이 거대한 고분들은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던 '마립간' 시기에 조성된 돌무지덧널무덤이다.

가야 연맹의 성장

금관가야가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쇠퇴하자,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성장하여 새로이 가야의 여러 소국을 주도하며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

대가야는 합천 지역을 복속하고 소백산맥을 넘어 섬진강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내륙에 위치했던 대가야는 섬진강을 통해 새로이 바닷길을 개척하고 중국 남조, 왜 등과 교역을 시도하였다. 또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여 신라와 백제의 군사 동맹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가야 연맹의 변화



가야 금동관(경북 고령 출토)



'대왕(大王)'이 새겨진 대가야 토기(충남대학교박물관)



자산동 44호분(경북 고령) 무덤 내부에 32개의 순장관이 있어 당시 대가야 왕의 힘을 잘 보여 준다.

이야기 # 토기로 보는 대가야 문화권

대가야 토기는 4세기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5세기 말에는 거창, 함양, 남원, 임실, 장수에까지 전해지고, 6세기 초에는 진주를 거쳐 남해안으로 퍼져 나갔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대가야 토기를 통해 대가야의 국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대가야 토기 (전북 남원 출토)



대가야 토기 (경북 고령 출토)



대가야 토기 출토 지역

스스로 확인

- 1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을/를 수용하고 □□을/를 반포하였다.
- 2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호를 '왕'으로 개편한 왕은?
- 3 금관가야가 쇠퇴한 후 고령 지역의 □□□□이/가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성왕
- 진흥왕
- 화랑도

3 삼국의 항쟁이 격화되고 가야가 멸망하다

학습 목표 |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삼국 항쟁이 격화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백제의 중흥과 사비 천도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수로 교통이 편리하고 평야 지대인 사비(충남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중앙 관청과 지방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또 부여 계승 의식을 표방하여 한때 국호를 ‘남부여’라 칭하였다.

성왕은 중국의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며 불교와 유교를 장려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왜에 불교를 전파하고 오경박사를 비롯해 건축, 미술 등에 조예가 깊은 여러 전문가를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

6세기 중반 고구려는 왕위 계승 분쟁과 돌궐·북제의 침입으로 국력이 약해졌다. 이에 백제와 신라는 함께 북진하여, 백제는 잃어버린 한성 지역을 되찾았고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신라 **진흥왕**은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한성 지역마저 기습 점령하였다. 이에 맞서 백제 성왕은 가야 및 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관산성(충북 옥천) 전투에서 전사하였다(554).

신라는 경제·군사적 요충지인 한강 유역을 확보한 뒤, 황해를 통해 독자적으로 중국과 교류하였다. 진흥왕은 **황룡사**를 짓고 불교를 장려하여 국가의 정신적 통합을 꾀하는 한편,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재편해 인재를 양성하여 고구려와 백제에 맞섰다.

세속 5계를 실천해야 한다.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효를 다해 아버지를 모셔라. 신뢰로 친구를 사귀고,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마라. 그러나 살생은 꼭 가려서 해야 한다.



▲ 황룡사(복원 모형, 국립경주 박물관)

이야기 샘 # 신라 성장의 발판이 된 화랑도

화랑도는 진골 귀족의 자제를 화랑으로 선발하고 그를 따르는 낭도와 이들을 교육하는 승려로 구성되었다. 진골 귀족부터 평민까지 여러 신분층의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져 단체 활동을 통해 무예와 사회 규범,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였다.

김대문이 『화랑세기』에서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맹한 병사가 여기에서 생겨났다.”라고 하였을 정도로, 화랑도는 신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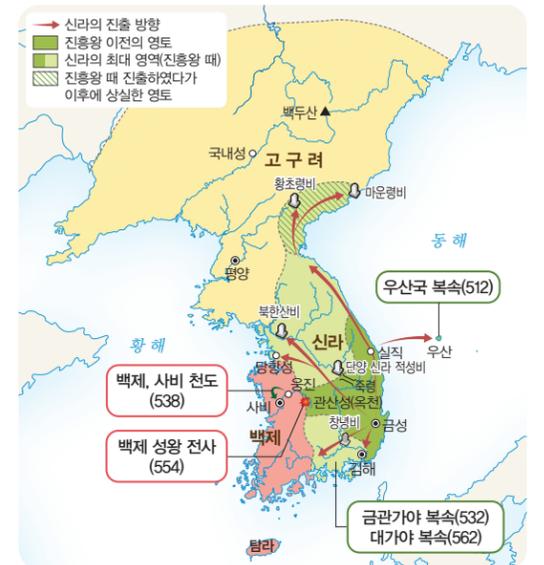
가야 연맹의 멸망

대가야는 가야의 여러 소국을 지배하며 가야 연맹을 이끌었지만, 금관가야 등 여전히 자립적인 지역 세력들이 존재하였다. 이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무른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가 가야 영토로 진격해 오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에 스스로 항복하였으며, 대가야마저 백제의 가야 진출을 막으려 했던 신라 진흥왕에 복속되었다(562). 이로써 가야 연맹은 소멸하였다.

삼국 항쟁의 격화

진흥왕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함흥평야 일대까지 진출하였고, 정북한 지역에 **순수비**를 세워 신라의 발전을 대외에 과시하였다.

그러나 6세기 후반 정치적 내분을 극복한 고구려가 잃어버렸던 죽령 이북의 땅을 되찾기 위해 신라를 공격하였다. 또 백제의 무왕이 소백산맥을 넘어 옛 가야 권역으로 진출하여 진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대하면서 삼국 항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신라는 고구려·백제 양국의 공격으로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정국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 6세기 신라의 영토 확장

지식+ 단양 신라 적성비에 나타난 진흥왕대 신라의 발전



▲ 단양 신라 적성비(충북 단양)

진흥왕 초기에 건립된 단양 신라 적성비의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 발달한 신라의 국가 지배 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신라의 왕과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 국가의 일을 결정하였지만, 진흥왕은 단독으로 왕명을 내렸다. 이는 귀족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백성을 낱알이 호적에 기록하고 연령별로 등급화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요역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보훈 제도를 마련하여 홀로 남은 아내와 어린 자식을 국가가 돌보아 주고 보상하여 지방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부 체제 정비에 신라가 대외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스스로 확인

- 1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한 신라의 왕은?
- 2 신라는 □□□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재편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삼국 통치 체제의 모습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삼국과 가야는 건국 초기에 여러 지역 세력이 연맹한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왕권이 성장하면서 지역 세력들이 독자성을 잃고 중앙의 귀족으로 흡수되었고, 중앙 정부는 이들을 관등제를 통해 서열화하였다. 또 각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정복 활동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였다.

한편 넓어진 영토와 많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여 사상적 통일을 꾀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의 압박으로 가야는 연맹 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신라에 복속되었다.

2 관등제 정비

지역 세력을 중앙 귀족으로 흡수하고 신분제와 관등제를 통해 국가의 관료로 서열화하였다.



3 지방 행정 체제의 정비

각 지역에 행정 구역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해 왕이 전국을 다스렸다.



이 나라는 모두 왕의 땅이다.
이제 각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릴 것이다.

웅진으로...
금마저(전북 익산)로...

1 왕권 강화

왕권이 강화되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세습하였다.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당연하옵니다.

5 율령 반포

율령을 반포하여 넓은 영토와 백성을 일원적인 규범으로 다스렸다.



나날이 커지는 나라를 이제 법을 통해 공평하게 다스리겠소.

저 관리는 뇌물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됐대네.

6 불교 수용

불교를 수용하여 선업을 쌓고 불법을 수호하는 국왕의 권력을 정당화하였다.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기 위해 이 절을 짓는 거야.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 줄 거야.

4 영토 확장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자. 땅을 넓히고 백성을 늘려야 한다.

탐구 1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특징을 말해 보자.

탐구 2 가야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내적·대외적 원인을 말해 보자.

탐구 3 신라의 신분제인 골품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해 보자.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

내가 이렇게 그린다고 실제 사람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고 믿는 것은 아니겠지?



Q 벽화 속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

☑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귀족
- 의식주

1 신분에 따라 다른 생활을 하다

학습 목표 | 삼국 시대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

삼국 시대의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다른 생활을 하였다. 왕실이나 귀족은 화려한 무늬를 넣은 벽돌이나 기와를 이용하여 만든 집에서 살았으며, 탁자나 침상을 사용하였다. 집 안에 부엌, 고깃간, 수렛간, 곡식 창고 등의 건물을 지었다. 반면에 일반 평민은 초가집에서 살았으며 거적 등을 바닥에 깔고 생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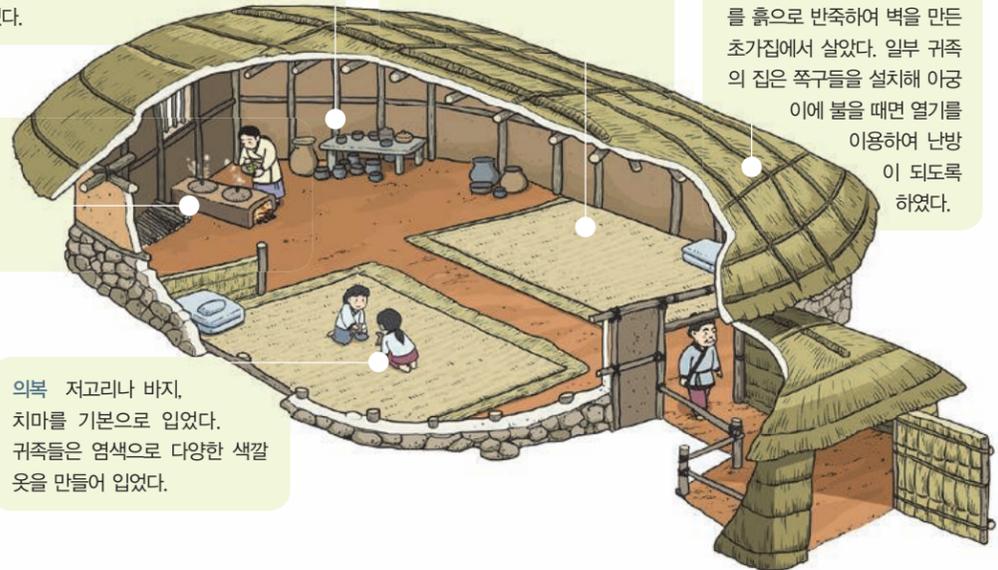
☑ 삼국 시대 가옥의 모습 다소 지위가 있는 촌주나 부유한 농민층의 가옥이라 할 수 있다.

항아리와 찬장 백성은 잡곡을 주로 먹었다. 말린 어묵과 채소 된장 등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 소금에 절인 장아찌는 중요한 반찬이었다.

바닥 짐을 촘촘히 천처럼 짜서 바닥에 깔았다.

집 돌을 쌓거나 나무 기둥으로 만든 틀에 벗짚이나 수숫대를 흙으로 반죽하여 벽을 만든 초가집에서 살았다. 일부 귀족의 집은 쪽구들을 설치해 아궁이에 불을 때면 열기를 이용하여 난방이 되도록 하였다.

아궁이 토기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시루 모양의 토기에 곡식을 찌 먹기도 하였다.



의복 저고리나 바지, 치마를 기본으로 입었다. 귀족들은 염색으로 다양한 색깔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의복 또한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왕족이나 귀족은 비단에 다양한 색과 화려한 무늬를 넣은 옷을 입었고, 평민은 색이 단조로운 베로 만든 옷을 입었다.

대부분의 백성은 콩·보리·조·수수 등 주로 잡곡을 먹었으며, 양식이 떨어지면 도토리나 나무껍질 등을 먹으면서 굶주림을 해결해야 했다. 왕족과 귀족은 주로 쌀을 먹었으며 사냥과 사육으로 얻은 가축, 과일과 해산물 등을 즐겼다.



☞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청동 수저(국립공주박물관)

고구려 고분 벽화를 통해 본 사람들의 일상과 신앙

일상생활



☞ 주름 치마를 입은 귀족 여성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볼에 연지를 찍어 화장한 모습이다.

☞ 아궁이가 있는 부엌과 사냥한 동물이 걸려 있는 모습이다.

☞ 수렵 대회를 열어 무예를 겨루기도 하였다.

☞ 귀족은 주로 탁자를 이용한 생활을 하였다.

☞ 귀족이 타거나 짐을 나르기 위해 수레를 사용하였다.

신앙



☞ 농사의 신인 신농씨를 표현한 그림이다.

☞ 대장간에서 일하는 쇠의 신과 수레바퀴를 다루는 수레바퀴의 신을 그린 것으로, 고대 동아시아의 다양한 신앙을 엿볼 수 있다.

놀이



☞ 광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곡예를 하고 있다.

☑ 삼국 시대 사람들은 노래와 춤, 기예를 즐겼다.

스스로 확인

- 1 삼국 시대의 사람들은 □□에 따라 다른 생활을 하였다.
- 2 왕족이나 □□은 비단에 다양한 색과 화려한 무늬를 넣은 옷을 입었다.

☑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굴식 돌방무덤
- ☐ 무령왕릉
- ☐ 돌무지덧널무덤

2 삶과 신앙의 모습을 고분에 남기다

학습 목표 | 삼국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고분 벽화나 유물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고분 문화

삼국 시대 왕족이나 귀족은 사후 세계를 믿어 죽은 자를 위해 무덤을 만들고 꺼묻거리를 함께 묻었다. 삼국은 나라와 시기마다 다양한 형태의 고분을 만들었다. 특히 돌로 방을 만들어 천장과 벽에 그린 그림은 당시 사람들의 풍속과 신앙, 다양한 생활 모습을 잘 보여 준다.

고구려는 고분에 풍속, 인물, 도교의 사신 등을 소재로 벽화를 그렸다.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으로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만들었고 굴식 돌방무덤 등도 남겼다. 특히 벽돌로 만든 무령왕릉을 남겼다. 신라는 독특한 형태의 돌무지덧널무덤을 남겼고 굴식 돌방무덤도 만들었다. 가야도 김해, 고령 등지에 대형 고분을 축조하였다.



☞ 토우 장식 장경호(국립경주박물관) 흙으로 빚은 작은 인물이나 동물이 장식되어 있다. 무덤의 꺼묻거리로 출토되어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

☞ 고령 지산동 고분군(경북 고령) 대가야의 거대한 고분들이 산 능선과 사면에 남아 있다.

고구려의 굴식 돌방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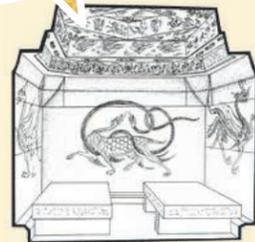
고구려는 초기에 돌을 쌓아 올린 돌무지무덤을 많이 만들었으나, 점차 돌을 쌓아 방을 만든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다. 굴식 돌방무덤의 천장과 벽에는 다양한 인물과 풍속,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 모습 등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 해의 신과 달의 신(오회분 4호묘, 중국 지린성) 동아시아 고대 신화 속의 해의 신(오른쪽)과 달의 신이 화려한 색으로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퉁이에 그려져 있다.



☞ 강서 대묘 천장 (남포 강서)



☞ 강서 대묘 내부 모습

탐구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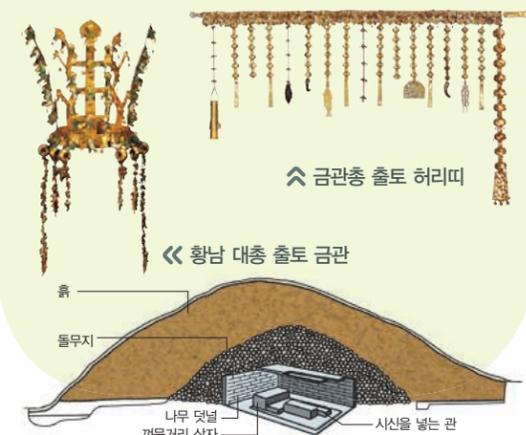
고분 문화의 정수, 왕실 명품 꺼묻거리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

시신과 꺼묻거리를 넣은 나무 덧널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은 후 흙으로 거대한 봉분을 만들었다. 경주에 여러 기가 분포하고 있다. 금관, 금제 장신구, 유리 제품 등을 비롯해 많은 꺼묻거리가 발굴되었다.



☞ 천마총 출토 천마도



☞ 금관총 출토 허리띠

☞ 황남 대총 출토 금관



☞ 나무 덧널, 꺼묻거리 상자, 시신을 넣는 관

백제 무령왕릉

중국 남조의 벽돌무덤 양식으로 축조되었다. 벽돌을 쌓아 만든 방에 왕과 왕비의 시신을 목관에 안치하고 많은 꺼묻거리를 두었다. 이를 통해 당시 백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문물 교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다.



☞ 청동 다리미와 금동 신발 일본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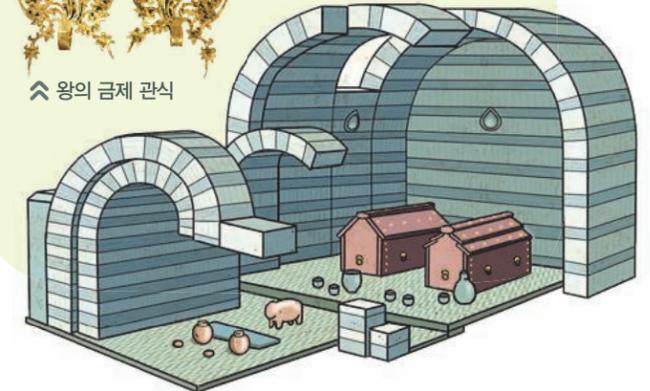
☞ 오수전 중국의 화폐로 백제와 중국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 준다.



☞ 왕의 금제 관식



☞ 환두대도



1 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을 찾아 그 쓰임새를 설명해 보자.

2 백제 무령왕릉이 당시 동아시아의 활발한 문화 교류 사실을 보여 준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3 삼국 시대 사람들이 거대한 고분을 만들어 꺼묻거리를 함께 묻은 이유를 설명해 보자.

스스로 확인

- 1 신라는 경주에 거대한 봉분을 가진 무덤을 남겼다.
- 2 백제는 벽돌을 이용하여 축조한 을/를 공주에 남겼다.

☑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서역
- 아스카 문화

3 주변 국가와 교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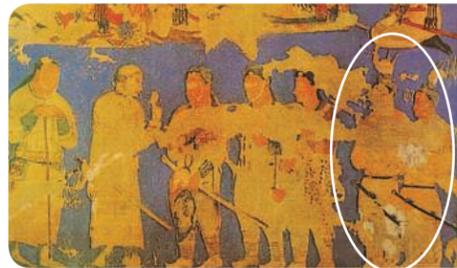
학습 목표 | 삼국 시대 주변 국가와의 교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중국, 서역과 교류

삼국은 **초원길**, 중국을 거치는 **사막길**, 서·남해안의 **바닷길**을 통해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중국을 통해 불교, 유교, 한자, 과학 기술 등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역** 문화와도 접촉하였다.

고구려는 초원길을 통해서 유목 민족과,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하였다. 일찍부터 해상 강국으로 성장한 백제는 서남해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해상 교역로를 이용하여 중국의 동진, 남조, 일본과 교류하였다. 신라는 초기에 고구려를 통해 중국과 서역 문화를 받아들였다. 가야도 바다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였다.

●● 서역 중국의 서쪽 지역을 가리킨다. 지금의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유럽을 모두 포함한다.



1 ▲ 아프리카나 궁전 벽화(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2 ▲ 고구려 사신 추정 인물 ▲ 고구려 각저총 벽화(중국 지린성) 씨름하는 인물 중 한 명이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 1 경주 계림로 보검
- 2 황남 대총 출토 금제 팔찌
- 3 ▲ 4 경주에서 출토된 사람 얼굴이 새겨진 유리구슬과 유리 제품

일본과 교류

삼국과 가야는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한반도에서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일본 열도로 이주하였다.

일본과 가장 밀접한 관계였던 백제는 일본에 불교와 한자, 유학뿐만 아니라 천문학과 건축 등 과학 기술을 전하였다. 고구려와 신라는 미술과 조선탐 등을, 가야는 발달한 철기 문화와 토기를 일본에 전하였다. 이렇게 전해진 삼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였다.

5 호류사 금당과 오층 목탑(일본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백제 건축 기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6 백제 관음상(일본 나라 호류사) 일본으로 간 백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쇼소인은 일본 나라에 있는 도다이사에 속한 건물로 일본 왕실의 보물 창고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는 일본, 백제, 신라, 당, 인도, 사산 왕조 페르시아 등의 희귀한 고대 유물 9,000여 점이 지금까지 온전한 상태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특히 1,300여 년 전 백제 의자왕과 관련된 바둑판과 바둑돌 등 희귀한 한반도의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일본 왕실의 보물 창고, 쇼소인에 있는 우리 보물



▲ 백제 가공 유리잔 서역 페르시아 계통의 유리잔에 백제가 은으로 가공한 받침을 붙였다. 특히 받침에 새겨진 문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사리호의 문양과 유사하다.



▲ 백제가 선물한 바둑판과 바둑돌

스스로 확인

- 1 ▲ 아프리카나 궁전 벽화나 황남 대총 출토 금제 팔찌 등은 삼국과 □□의 교류 사실을 보여 준다.
- 2 한반도와의 문화 교류를 배경으로 일본에서 발전한 문화는?



삼국의 문화

삼국 시대 불교 관련 문화유산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삼국에서 발전한 종교와 학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 불교문화의 발전

중국을 거쳐 삼국에 들어온 불교는 왕실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불교와 함께 건축과 예술, 사상 등 선진 문화도 들어왔다. 원광과 자장 등 중국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승려들이 활동하였고, 국가 주도로 백제의 미륵사나 신라의 황룡사와 같은 거대한 사찰이 세워졌다.

사찰에는 신앙의 대상으로 탑이 세워졌고, 각지에 불상도 조성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석탑으로는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 유명하다. 불상으로는 백제의 서산 용현리 마애 여래 삼존상이 대표적이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도 여러 점 전해진다.



서산 용현리 마애 여래 삼존상(충남 서산) 백제의 미소로 대표되는 불상으로 암벽을 깎아 삼존불을 조성하였다.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국립중앙박물관) 몸에서 나온 빛을 표현한 광배가 특징적인 고구려 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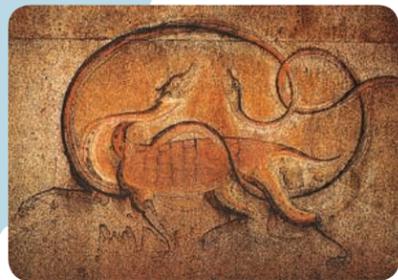
익산 미륵사지 석탑(전북 익산)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오랜 세월을 지나며 크게 파손되었다. 이후 방치되다시피 한 석탑을 최근 완전 해체하여 보수하였다.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경북 경주)

2 도교의 수용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 사상과 노장사상 등이 결합된 도교가 삼국에 전래되어 귀족 사회에서 유행하였다. 이 때문에 고분 벽화나 여러 공예품에 도교 신앙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현무도(남포 강서) 도교의 사신 중 하나인 현무를 그린 고구려의 고분 벽화이다.



산수무늬 벽돌(국립중앙박물관) 도교의 신선 사상이 나타나 있어 당시 귀족 사회에 도교가 유행하였음을 보여 준다.

3 유학의 발전

중국에서 한자와 유학이 전래되면서 유학 교육 기관도 만들어졌다. 고구려는 태학을 세웠고, 백제는 오경박사를 두어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유학은 인재를 양성하고 일상의 규범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임신서기석(국립경주박물관) >> 신라 청년 두 사람이 유교 경전을 읽기로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 과학 기술과 공예의 발전

삼국 시대 왕들은 하늘과 연결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일식, 혜성의 출현 등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천문학이 발전하여 고분에 별자리를 그리기도 하고, 첨성대와 같은 천문 관측 시설을 만들기도 하였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여 철제 무기나 농기구뿐만 아니라 신라 금관이나 각종 장신구, 백제 금동 대향로와 같은 우수한 공예품도 만들어졌다. 음악은 종교 의식이나 축제와 관련하여 발전하였고, 거문고와 가야금 등의 악기도 만들어졌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나 신라의 천마도 등은 당시 높은 회화 수준을 보여 준다.

| 황남 대총 출토 비단벌레 장식 말안장 뒷가리개(복제품) |



화려한 빛깔의 비단벌레 날개 2,000여 장과 정교하게 무늬를 뚫은 금동판이 옷칠로 붙여져 있는 신라의 유물이다.



비단벌레

| 백제 금동 대향로 |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높이 64cm의 향로이다. 백제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 주는 걸작이다.



- 상서로운 상상의 동물인 봉황을 표현하였다.
- 향로의 뚜껑 부분이다. 도교에서 신선이 산다는 이상향을 표현하였다.
- 향을 담는 몸통 부분이다. 불교에서 중시하는 연꽃을 표현하였다.
- 향로의 받침대이다. 용이 입으로 향로의 몸통 부분을 받치고 있다.

탐구 1 삼국의 불교 관련 문화유산을 찾아 나라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경주 첨성대(경북 경주)

탐구 2 삼국 시대 도교의 유행 사실을 알려 주는 문화유산을 찾아보자.

탐구 3 삼국 시대의 대표적 문화유산을 하나 선택하여 이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

- ①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린다.
- ② 제목을 달고 한 문장으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

I 대단원 마무리

스스로 정리하기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자.

1 다음 유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찾아 그 명칭을 써 보자.

(2) (가)~(라)를 제작된 시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천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천군이러 부른다. 천군이 제사 지내는 지역을 (㉠)이라 하는데, 이곳으로 죄인이 도망하여 숨더라도 잡아가지 못하였다.

(1) ㉠에 들어갈 말을 써 보자.

(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 모습의 특징을 서술해 보자.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마한 지역을 복속하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나)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다)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였다.

(1) (가)~(다) 사실에 해당하는 나라와 왕을 각각 써 보자.

(2) (가)~(다) 사실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4 경주에서 발견된 다음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서술해 보자.



5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분 양식의 명칭을 써 보자.

시신과 켜문거리를 넣은 나무 덧널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은 후 거대한 봉분을 만들었다.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이 대표적이다.

역사야 놀자

삼국 시대 각 나라의 발전 모습을 왕의 활동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되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을 왕을 중심으로 한 마인드맵을 만들어 정리하고 공부해 보자.

1 단계

모둠별로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 중 한 나라를 선정하고 그 나라에서 대표적인 왕 3~4명을 선정한다.

같은

나라별로 다음과 같은 왕을 선정할 수 있다.

- 고구려: 태조왕, 소수림왕, 광개토 대왕, 장수왕
- 백제: 근초고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 신라: 내물왕,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2 단계

각 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과 국왕의 활동을 찾아 정리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 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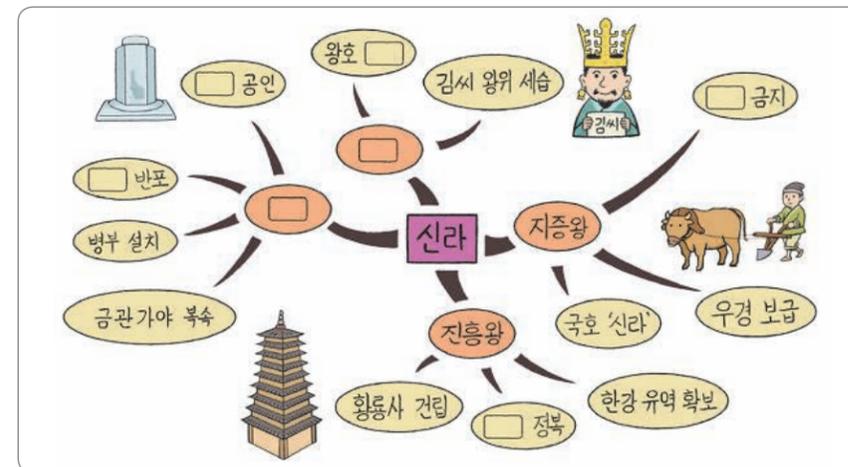
3 단계

종이에 마인드맵을 만들어 일부 내용은 빈칸으로 남긴다.

4 단계

모듬이 만든 마인드맵을 옆 모듬과 교환하여 빈칸을 채워 내용을 완성한다.

마인드맵 예시



유의 사항

- 모듬별로 주제가 겹치지 않도록 한다.
- 모듬원의 역할을 잘 나누어 협동 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 마인드맵의 내용은 단어나 구절 등 형식을 가능한 한 통일한다.
- 빈칸으로 만들 내용은 적절한 난이도로 안배한다.

평가 방법

- 역사적 사실과 개념이 정확한가?
- 마인드맵의 세부적 구성이 타당한가?
- 중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가?